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분석

이진주¹⁾ 김정은²⁾ 문대근³⁾ 이종각⁴⁾ 문수백⁵⁾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이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밝히는데 있다. 본 연구는 대구시에 소재한 중학교 학생 79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 집단따돌림 도구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AMO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다음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이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는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는 집단따돌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집단따돌림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전체효과는 대인관계능력($\beta = -.28, p < .05$), 자아존중감($\beta = -.24, p < .05$), 또래지지($\beta = -.23, p < .05$), 부모지지($\beta = -.18, p < .05$), 교사지지($\beta = -.04, p < .05$)순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 집단따돌림, 청소년

1)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2)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3)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석사과정 졸업

4)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5) 교신저자 :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E-mail : iqmoon@hanmail.net)

I. 서론

6월2일 대구의 한 고교생이 ‘폭력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자살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중학생이 동급생들의 집단따돌림으로 목숨을 끊은 이후 대구에서만 불과 5개월여 사이 중·고교생 10명이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고, 지금까지 8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김대벽, 2012. 6. 4). 이렇게 연일 이어지는 충격적인 사건들로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의 문제는 이제 학교 차원을 떠나 사회 문제로까지 확산되어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청소년기의 집단따돌림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청소년기가 성인기의 건전한 적응과 성장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박미선, 김용수, 2003). 집단따돌림이란 한 집단 내에서 다수가 한 개인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집단따돌림은 어른들이 생각할 때처럼 단순히 놀이에 끼워주지 않거나 상대를 해치지 않는 정도의 소극적 따돌림부터 구타나 심부름, 금품갈취 등의 심한 물리적 괴롭힘까지 포함된다(이기문, 김진희, 1999).

집단따돌림 피해자들은 그렇지 않은 보통의 청소년들에 비해 학교를 싫어하고(Ladd & Burgess, 2001),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며(김은정, 김인경, 정태연, 2001), 우울/불안 및 외로움을 느끼고(Olweus, 1994; Perry, Williard, & Perry, 1990), 또한 친밀하지 못한 교우관계를 가짐으로써 실생활의 적응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Suzanne, Wendy, Debra, & Jennifer,

2003)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집단따돌림은 건강한 청소년기의 발달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며, 이후의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Olweus, 1992; Rigby, 1999).

집단따돌림의 피해경험은 단일한 요인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차원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집단따돌림에 관련된 개인적 특성과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사회기술의 부족과 부적절한 대인관계 기술이다. 이는 또래 사이의 관계를 해치고, 따돌림을 촉발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데(구본용, 1997; Jessor & Jessor, 1997; Kandel, 1978) 사회기술이 낮은 아동들은 또래들로부터 잘 수용되지 못하거나 효과적인 상호작용에 필요한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Suderman, Jaffe, & Schick, 1996). 그리고 사회기술의 부족으로 또래 관계가 잘 맺어지지 못할 경우 새로운 사회 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심각한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볼 수 있다(김윤경, 1997). 둘째, 낮은 자아존중감이다. Austin과 Joseph(1996)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빈도가 적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비평이나 자신의 실패에 대하여 실망하거나 위축되는 과민한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는데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보다 불안이 강하며 대인관계가 좋지 않고 자신감과 지도력이 결여되어 있다(Rosenberg, 1965). 이러한 연구결과는 집단따돌림이 사회기술 및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집단따돌림에 관련된 환경적 특성과 원인은 가정, 학교, 사회 환경으로부터 비롯된 원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박진영, 2008; 장문영, 2008; 정화니, 2010), 부모애착(박소현, 2008), 부모와의 의사소통(한송이, 2007), 학급응집력(진경옥, 2008), 또래애착(박소현, 2008), 사회적 지지(강명옥, 2011; 이춘재, 2000; 장미향, 성한기, 2007) 등을 들 수 있다.

청소년기가 되면 이전에 비해 친구들의 수가 더욱 많아지고,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친구들과 보내는 반면에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친구 및 또래 집단의 중요성과 영향이 증가하게 된다(장미향, 성한기, 2007). 청소년들의 주요 사회지원으로는 부모, 친구 및 교사를 들 수 있는데, Rigby(2000)는 부모와 교사 또는 친구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심리적, 사회적, 학업적, 건강적 측면에서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집단따돌림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Demaray와 Malecki(2003)도 중학생 집단에서 집단따돌림 피해집단이 집단따돌림이 없는 비교집단에 비해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았으며,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피해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즉, 피해집단의 사회적 지지 수준은 낮지만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은 높게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 또래, 교사와 같은 주요 근원이나 물질적·정서적 등의 유형으로 구분되거나, 실제로 받는 지지와 받기를 원하는 지지 간의 차이로 구분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근원이 제공한 사회적 지지를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렇게 집단따돌림의 발생원인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 가정 환경적 요인, 학교 환경적 요인 등이 있다. 이러한 원인들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변인들의 관계를 규명한다면 집단따돌림의 예방 방안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국외 여러 나라에서는 집단 따돌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에서 지원하여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변인들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과 대규모의 체계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있는 등 나름대로의 대책이나 처지방안, 그리고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고 있다(곽금주, 1999).

하지만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집단따돌림의 실태조사(김용태, 박한샘, 1997; 김준호, 2002; 조학래, 2002),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을 밝히는 연구(이춘재, 곽금주, 2000; 정수진, 2011), 특정 프로그램이 집단따돌림에 미치는 효과검증(김동욱, 2011; 서기연, 2011; 양곤성, 2011; 이선희, 2012)이 주를 이루는 실정이다. 이에 노성호(2004)는 기존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집단따돌림의 개념정의에서부터, 보다 심층적이고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가정 환경적 요인, 학교 환경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집단따돌림을 설명하고자 한다. 집단따돌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으로는 선행연구에서 이미 상관관계가 입증된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을 설정하였고, 환경변인으로는 가정 환경적 요인(부모지지)과 학교 환경적 요인(교사지지, 또래지지)을 동시에 살펴

볼 수 있는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설정하고 구조방정식모델링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집단 따돌림과 관련성이 높은 원인변인들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청소년의 집단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구모델인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를 신뢰롭게 추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연구대상을 얻기 위해 모수치: 피험자의 수의 비율을 1:15의 기준으로 대구 지역에 소재한 1개교에서 층화무선표집방법으로 표집된 중학교 1학년(250명), 2학년(263명), 3학년(277명)의 남(414명), 여(376명) 청소년 총 79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학생을 선택한 이유는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청소년들 중에서 중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박미선, 김용수, 2003).

2. 측정 도구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1985)이 만든 척도를 윤혜정(1993)이 수정 보완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중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반응이 편리하도록 수정한 후 전문가에게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또한 중학생들에게 예

비검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난이도와 적합성을 확인한 후 연구에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지지 24개 문항, 교사지지 24개 문항, 또래지지 24개 문항 등 총 7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요인으로는 정서적 지지 7 문항, 정보적 지지 6문항, 평가적 지지 6문항, 물질적 지지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항상 그렇다'(5점)에 이르는 5점 Likert 척도로 각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들 간의 내적합치도(Internal-Item Consistency)를 알아보기 위한 신뢰도 분석결과 정서적 지지(부모 .90, 교사 .91, 또래 .91), 정보적 지지(부모 .90, 교사 .89, 또래 .87), 평가적 지지(부모 .89, 교사 .88, 또래 .88), 물질적 지지(부모 .82, 교사 .83, 또래 .86)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최보가와 전귀연(1993)이 개발한 척도를 바탕으로 하여 중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반응이 편리하도록 수정한 후 전문가에게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또한 중학생들에게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난이도와 적합성을 확인한 후 연구에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으로는 가정적 자아존중감 9문항, 사회적 자아존중감 9문항, 학업적 자아존중감 8문항, 일반적 자아존중감 6문항으로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에 이르는 5점 Likert 척도로 각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들 간의 내적합치도(Internal-Item Consistency)를 알아보기 위한 신뢰도 분석결과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92,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89, 학업적 자아존중감은 .67, 일반적 자아존중감은 .73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Buhrmester, Furman, Wittenberg와 Reis(1988)가 제작한 대인 유능성 질문지(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QC)를 김창대와 김수임(2001)이 번안한 것을 토대로 중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반응이 편리하도록 수정한 후 전문가에게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또한 중학생들에게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난이도와 적합성을 확인한 후 연구에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으로는 대인관계 형성 및 개시 8문항,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7문항, 타인에 대한 배려 7문항, 갈등 관리 6문항, 적절한 자기개방 12문항으로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에 이르는 5점 Likert 척도로 총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들 간의 내적합치도(Internal-Item Consistency)를 알아보기 위한 신뢰도 분석결과 대인관계형성 및 개시는 .71,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은 .70, 타인에 대한 배려는 .79, 갈등관리는 .76, 적절한 자기개방은 .79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

집단따돌림을 측정하기 위하여 최은숙(1999)의 연구를 기초로 전민영(2007)이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해 15개 문항, 피해 15개 문항 등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요인으로는 소외형 5문항, 언어형 5문항, 신체형 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의 피해만을 측정하기 위하여 피해 15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없다'(1점)에서부터 '매우 자주 있다'(5점)에 이르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따돌림의 피해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문항들 간의 내적합치도(Internal-Item Consistency)를 알아보기 위한 신뢰도 분석결과 소외형 .76, 언어형 .72, 신체형 .56으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본 조사는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원인변인으로 설정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의 직·간접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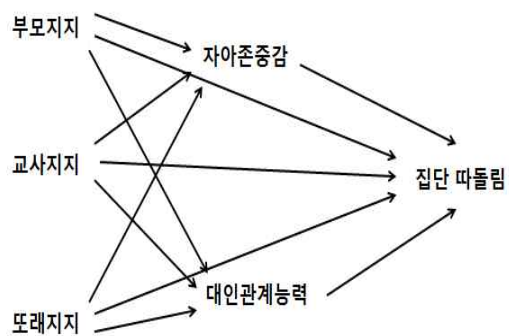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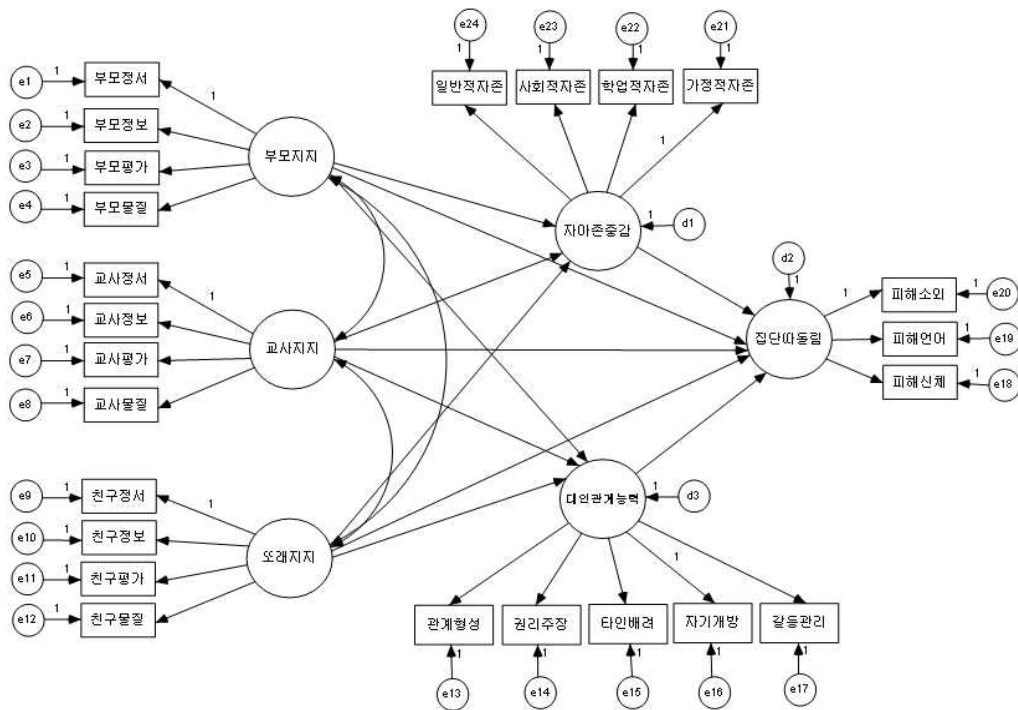


그림 2. 통계적 모델

1을 연구모델로, 그리고 그림 2를 통계적 검증모델로 설정하였다. 그림 2의 통계적 모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연구모델하의 각 이론변수들은 지표변수들을 이용하여 수학적 으로 측정되는 잠재변수로 설정하였다.

통계적 검증모델인 초기 구조회귀모델의 추정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AMOS19.0의 다변인 정규분포성 검증 절차를 통해 구조방정식모델 하의 24개 측정변수들에 대한 다변인정규분포 성을 검증한 결과, 21개 변인의 단 변인별 왜 도와 첨도 모두 정규분포의 조건을 만족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따돌림의 3개 측 정변인은 변인의 특성상 정적편포된 분포로 나타남으로써 변환(transformations)을 통해 원점 수의 분포를 수학적 변환인 로그함수($\log_{10} X$)

통한 보다 정규분포가정을 만족하는 새로운 분포로 변환시켰다. 24개 변인은 다변인정규 분포성 가정 역시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 문에 최대우도추정방법을 적용하여 모델의 부 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모델부합도는 부합도 지수 χ^2/df , RMSEA, CFI, NNFI 등을 통해 평가하였다. 그리고 모 델하의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는 유의수준 .05 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간접효 과 역시 AMOS19.0의 Bootstrapping 절차를 사 용하여 분석한 다음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II. 결 과

1. 측정변인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기술 통계치

통계적 모델하의 측정변인들 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각 측정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추정한 결과 표 1과 같다.

2. 측정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 평가

연구모델인 구조회귀모델의 모델추정가능성과 부합도를 검증하기 전에 2단계 모델추정가능성 확인절차(문수백, 2009: Kline, 2011)에 따라 최대우도 추정법에 의한 측정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하였다. 부합도 추정결과는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SEM(Structural Equation Model)연구의 부합도 분석결과 보고는 최소한 1) 연구모델의 χ^2 값, 2) Steiger-Lind의 90% 신뢰구간 RMSEA, 3) Bentler CFI, Tucker와 Lewis(1973)의 NNFI, 그리고 4) SRMR을 보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문수백, 2009: Kline, 2011).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부합도 지수 평가에서 측정모델의 RMSEA = .06~.07을 비롯한 모든 부합도지수가 부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모수치를 추정한 결과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잠재변인과 지표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모든 잠재변수에 있어서 지표변수들의 표준화 회귀계수인 요인부하량이 모두 평균 .50이상의 높은 부하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론변수들 간의 상호상관정도를 검

토한 결과 어떤 이론변수도 모델하의 다른 이론변수들과 -.22~.73의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잠재변인들 간의 변별타당도를 위해 .85-.90이상이 되어야 한다(문수백, 2009: Kline, 2011). 즉, 연구모델하의 각 이론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된 지표변수들이 충분한 수렴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고, 이론변수들 간에도 충분한 변별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모델에 대한 어떤 수정도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델하의 모든 이론변수들이 측정모델을 통해 통계적으로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측정된 이론변수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설정한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3.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 추정결과

통계적 모델을 구성하는 측정모델의 모든 부합도지수가 부합도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조회귀모델의 모델추정가능성이 이론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최대우도추정방법을 통해 연구모델인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한 결과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초기연구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한 결과 RMSEA = .06~.07, SRMR = .06 CFI = .92, TLI = .91 등 모든 부합도 지수 평가에서 부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델이 자료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모델하의 모수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초기 연구

표 1. 측정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부모 지지	1 1.00																							
	2 .81	1.00																						
	3 .85	.85	1.00																					
	4 .66	.74	.71	1.00																				
교사 지지	5 .30	.33	.32	.25	1.00																			
	6 .30	.38	.34	.28	.74	1.00																		
	7 .29	.36	.37	.28	.75	.822	1.00																	
	8 .22	.28	.27	.29	.66	.66	.66	1.00																
	9 .33	.39	.37	.33	.28	.36	.36	.27	1.00															
또래 지지	10 .35	.45	.42	.40	.32	.38	.39	.34	.77	1.00														
	11 .34	.43	.41	.38	.32	.39	.40	.33	.81	.85	1.00													
	12 .23	.31	.31	.34	.26	.30	.33	.34	.66	.76	.74	1.00												
	13 .41	.43	.44	.33	.31	.31	.31	.26	.35	.35	.39	.32	1.00											
가야 큰줄라	14 .34	.37	.40	.34	.28	.27	.31	.24	.56	.51	.59	.49	.61	1.00										
	15 .28	.26	.29	.19	.20	.22	.28	.14	.19	.18	.22	.16	.35	.31	1.00									
	16 .69	.64	.69	.56	.27	.31	.31	.21	.33	.34	.37	.24	.61	.53	.33	1.00								
	17 .24	.28	.28	.24	.17	.26	.24	.19	.37	.38	.39	.36	.41	.46	.14	.30	1.00							
대인 관계 능력	18 .27	.27	.27	.20	.15	.21	.28	.14	.36	.34	.37	.32	.42	.49	.20	.29	.45	1.00						
	19 .25	.31	.29	.25	.24	.32	.33	.24	.45	.47	.47	.41	.45	.48	.20	.33	.49	.36	1.00					
	20 .31	.35	.35	.32	.22	.32	.32	.24	.54	.52	.57	.49	.47	.62	.24	.38	.59	.54	.61	1.00				
	21 .16	.21	.19	.19	.15	.19	.20	.19	.31	.33	.33	.32	.28	.27	.03	.19	.40	.34	.52	.46	1.00			
	22 .21	.19	.19	.17	.11	.16	.17	.13	.24	.21	.26	.20	.29	.41	.28	.23	.26	.31	.24	.30	.13	1.00		
집단 의존성	23 .17	.15	.18	.13	.13	.14	.15	.15	.16	.14	.18	.16	.21	.28	.24	.13	.22	.19	.19	.26	.09	.59	1.00	
	24 .10	.07	.07	.17	.06	.10	.07	.06	.15	.13	.12	.13	.10	.16	.16	.10	.21	.16	.21	.21	.14	.27	.32	1.00
평균	28.14	24.32	23.93	19.35	22.41	21.55	21.32	15.7	28.75	22.79	23.14	17.79	21.52	32.18	25.31	33.47	28.30	24.81	25.52	42.63	20.55	.79	.79	.73
표준편차	4.94	3.99	3.99	3.57	4.51	3.67	3.47	2.81	4.20	3.72	3.70	3.50	3.19	4.74	3.14	5.91	2.64	2.76	2.80	4.88	2.28	.11	.12	.07
최대	.57	.53	.39	.44	.13	.22	.17	.23	.53	.11	.08	.10	.01	.02	.47	.43	.05	.07	.04	.18	.20	.151	1.45	2.79
최소	.19	.55	.13	.08	1.30	1.74	1.94	3.10	1.23	.96	.87	.60	.35	.78	.50	.60	.56	.34	.64	.32	.99	1.97	1.66	9.55
n	790	790	79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1. 부모정서, 2. 부모통제, 3. 부모평가, 4. 부모통제, 5. 교사정서, 6. 교사평가, 7. 교사통제, 8. 교사평가, 9. 교사통제, 10. 친구정서, 11. 친구평가, 12. 친구통제, 13. 일반적 지능, 14. 사회적 지능, 15. 학업적 지능, 16. 가정적 지능, 17. 문제해결, 18. 리더십, 19. 타인배려, 20. 자기개방, 21. 갈등관리, 22. 피해소외, 23. 피해인양, 24. 피해신제)

표 2. 측정모델 부합도 지수

모델	NPAR	DF	CMIN	NC	TLI	SRMR	CFI	RMSEA(.07)	
								LO90	HI90
측정모델	63	237	1069	4.51	.92	.05	.93	.06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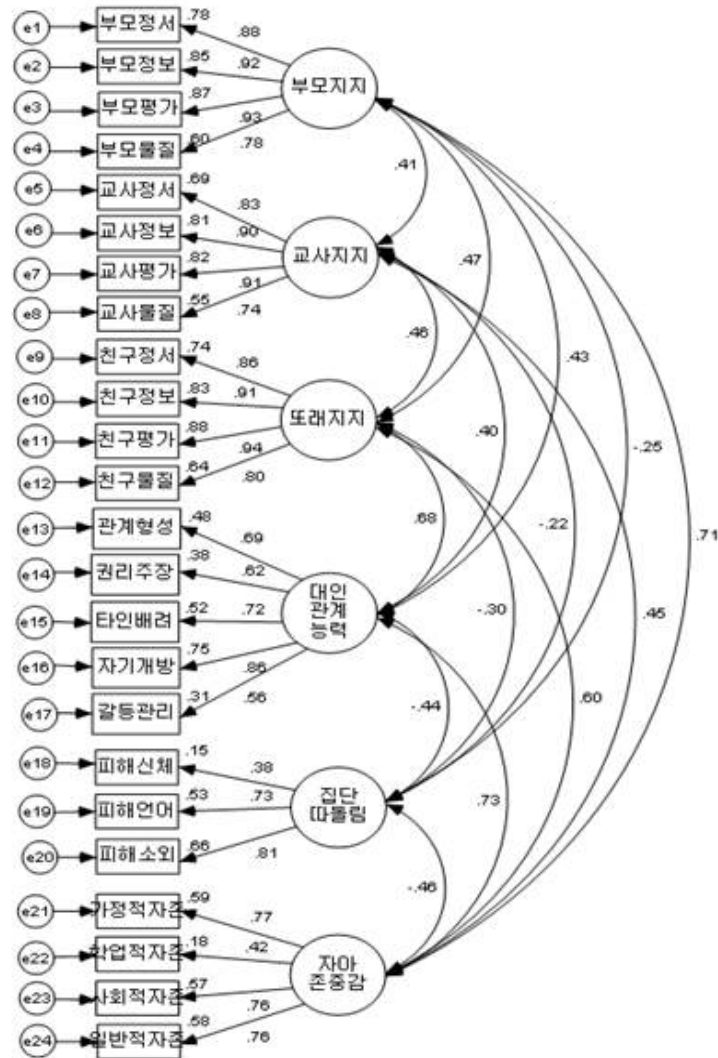


그림 3. 측정모델 모수치 추정결과

표 3. 초기연구모델의 부합도

모델	NPAR	DF	CMIN	NC	TLI	SRMR	CFI	RMSEA(.07)	
								LO90	HI90
초기모델	62	238	1189	4.99	.91	.06	.92	.06	.07

모델인 구조회귀모델의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다른 변인들 간의 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모지지가 집단따돌림에 미치는 직접효과(C.R. = 1.90, $p > .05$)와 교사지지가 집단따돌림에 미치는 직접효과(C.R. = -.31, $p > .05$), 또래지지가 집단따돌림에 미치는 직접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C.R. = 1.20, $p > .05$).

이는 초기연구모델에서 수정된 간명모델이

위계적 모델(hierarchical model)의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초기연구모델에서 부모지지 → 집단따돌림으로 가는 경로와 교사지지 → 집단따돌림으로 가는 경로를 삭제하여도 초기모델과 수정모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카이자승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chi^2_D = 5.13$, $p = .162$ 로서 부합도에 있어서 수정모델과 초기연구모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표 4. 초기연구모델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결과

변 인	비표준화 추정치	SE	C.R	표준화 추정치
<u>구 조 모 델</u>				
부모지지 → 자아존중감	.623	.042	14.85*	.568
교사지지 → 자아존중감	.104	.044	2.34*	.081
또래지지 → 자아존중감	.383	.048	7.91*	.289
부모지지 → 대인관계능력	.136	.035	3.83*	.141
교사지지 → 대인관계능력	.089	.041	2.17*	.080
또래지지 → 대인관계능력	.677	.048	14.25*	.581
부모지지 → 집단따돌림	.003	.001	1.90	.129
교사지지 → 집단따돌림	.000	.001	-.31	-.015
또래지지 → 집단따돌림	.002	.002	1.20	.079
자아존중감 → 집단따돌림	-.007	.002	-4.67*	-.387
가족 상호작용 → 집단따돌림	-.007	.001	-4.79*	-.306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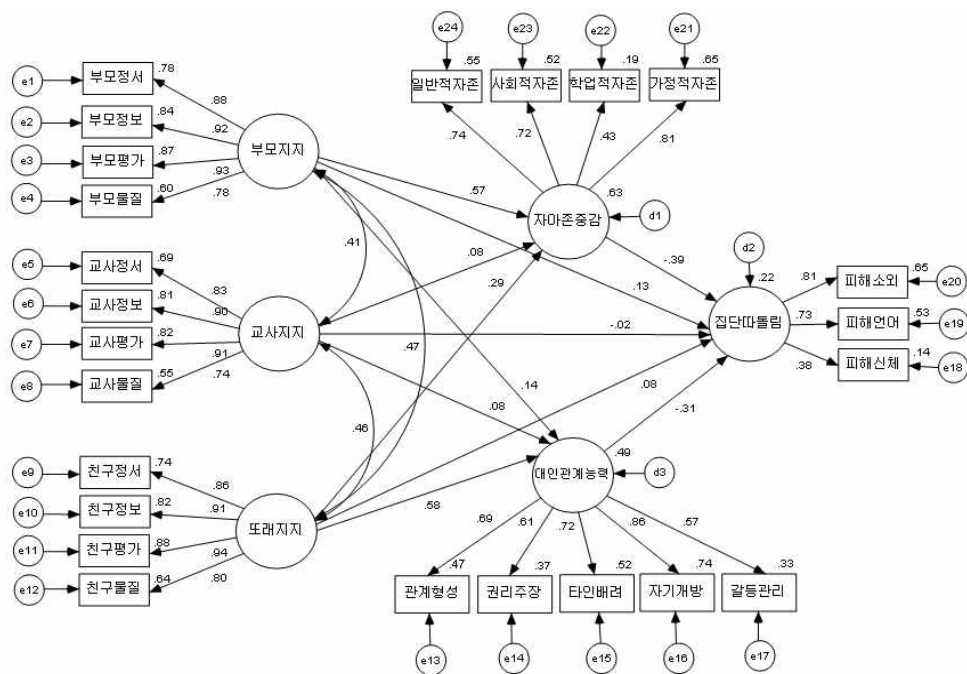


그림 4. 초기 연구분석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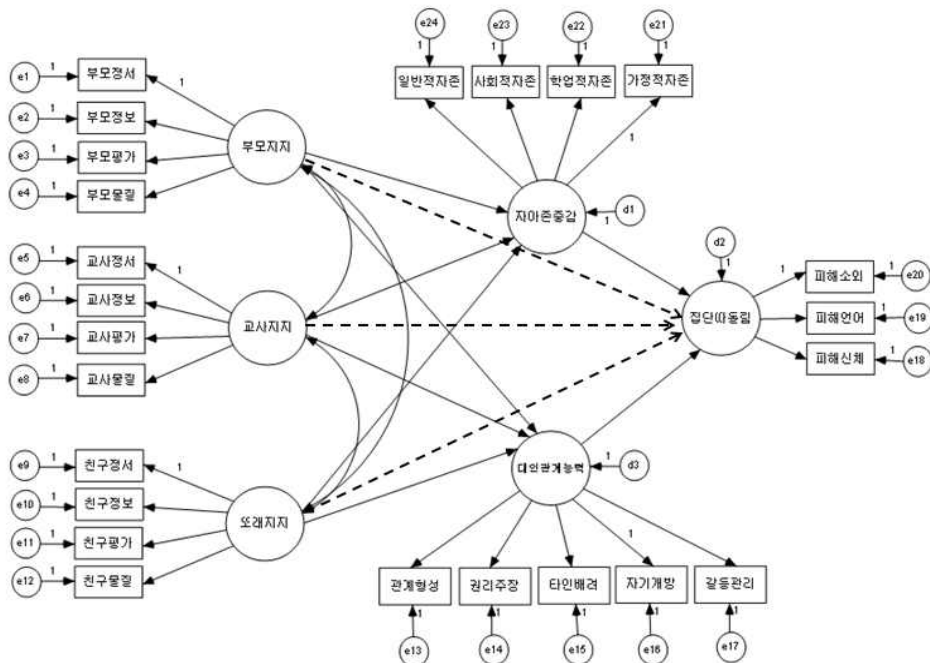


그림 5. 수정된 연구모델

나타났다. 따라서 수정모델이 초기연구모델과 비교하여 부합도 정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 손실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경로 3개를 제거한 보다 간명한 모델이므로 수정모델(그림 4)을 최종분석모델(그림 5)로 선택한 다음 부합도 및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4. 수정된 연구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 추정 결과

수정된 연구모델의 부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최대우도법을 통해 부합도 지수를 추정한 결과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반적인 모델의 부합도 지수는 초기연구모델과 비슷하였으나 절대 부합지수인 Chi-Square(CMIN)값만 5만큼 높아졌고,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의 부합도가 나빠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정된 연구모델의 모든 부합도 지수가 부합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수정모델의 모수치를 추정한 결과 그림 6, 표 6과 같다.

그림 6, 표 6을 통해 나타난 최종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beta = -.24, p < .05$)과 대인관계능력($\beta = -.28, p < .05$)이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지지($\beta = .57, p < .05$), 교사지지($\beta = .08, p < .05$), 또래지지($\beta = .28, p < .05$)가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 변인 중 부모지지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상대적으로 영향력(Total Effects)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또래지지, 교사지지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지지($\beta = .14, p < .05$), 교사지지($\beta = .08, p < .05$), 또래지지($\beta = .58, p < .05$)가 대인관계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 변인 중 또래지지가 청소년의 대인관계능력에 상대적으로 영향력(Total Effects)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모지지, 교사지지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지지($\beta = -.18, p < .05$), 교사지지($\beta = -.04, p < .05$), 또래지지($\beta = -.23, p < .05$)는 집단따돌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집단따돌림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전체효과는 대인관계능력($\beta = -.28, p < .05$), 자아존중감($\beta = -.24, p < .05$), 또래지지($\beta = -.23, p < .05$), 부모지지($\beta = -.18, p < .05$), 교사지지($\beta = -.04, p < .05$)순으로 나타났다.

표 5. 수정된 연구모델의 부합도

모델	NPAR	DF	CMIN	NC	TLI	SRMR	CFI	RMSEA	
								LO90	HI90
초기모델	62	238	1189	4.99	.91	.06	.92	.06	.07
수정모델	59	241	1194	4.96	.91	.06	.92	.06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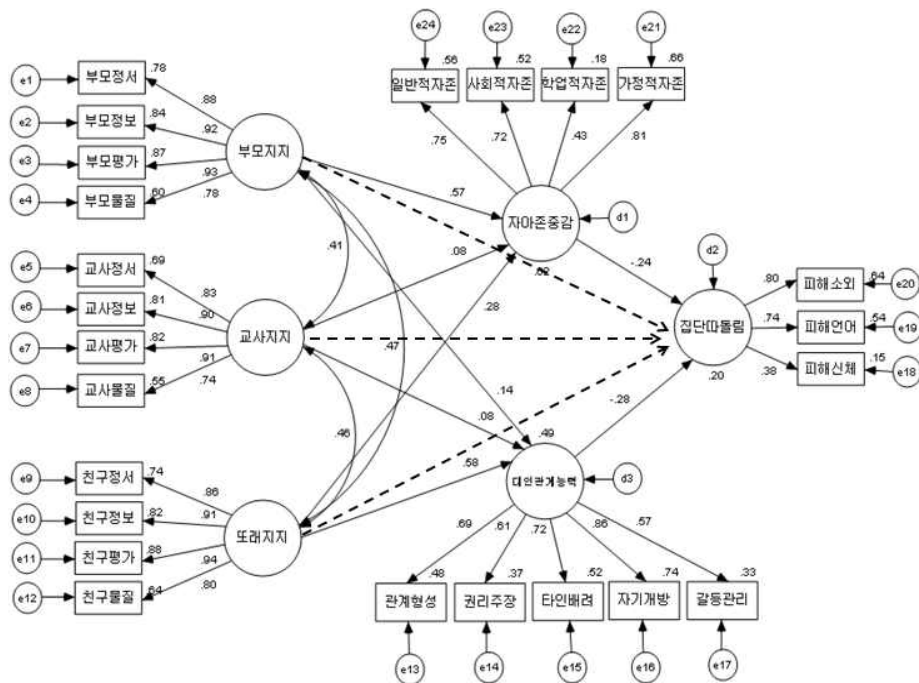


그림 6. 최종분석모델 모수치 추정결과

표 6. 집단따돌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변인간의 직·간접 효과 분해표

효 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부모지지 → 집단따돌림	-.18		-.18*
교사지지 → 집단따돌림	-.04		-.04*
또래지지 → 집단따돌림	-.23		-.23*
자아존중감 → 집단따돌림	-.24	-.24*	
대인관계능력 → 집단따돌림	-.28	-.28*	
부모지지 → 자아존중감	.57	.57*	
교사지지 → 자아존중감	.08	.08*	
또래지지 → 자아존중감	.28	.28*	
부모지지 → 대인관계능력	.14	.14*	
교사지지 → 대인관계능력	.08	.08*	
또래지지 → 대인관계능력	.58	.58*	

* $p < .05$.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의 관련변인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부모지지, 교사지지, 또래지지를 선정하여 이들 변인간의 인과적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모델인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를 검증하기 전에 모델추정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문수백, 2009; Kline, 2011)에 따라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으로 측정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한 결과 부합도 지수 평가에서 측정모델의 RMSEA(.06~.07)를 비롯한 모든 부합도 지수가 부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음으로 구조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 효과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RMSEA(.06~.07)를 비롯한 모든 부합도 지수는 부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었으나 모수치 추정결과에 따른 부모지지, 교사지지, 또래지지가 집단따돌림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지지에서 집단따돌림으로 가는 경로와 교사지지에서 집단따돌림으로 가는 경로, 또래지지에서 집단따돌림으로 가는 경로를 삭제한 보다 간명한 수정된 구조회귀모델을 설정하였다. 수정된 구조회귀모델과 초기연구모델을 비교한 결과 부합도 정도($\chi^2_D = 5.13, p = .162$)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부합도 지수에서 부합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수정된 구조회귀모델을 최종모델로 선정하여 모수치를 추정한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이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를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이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집단따돌림의 피해자 집단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냈으며,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정도와 자아존중감 사이의 부적인 상관관계가 보고되었다는 결과(Austin & Joseph, 1996)와 집단따돌림을 당한 피해자 집단은 당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을 보인다는 결과(Slee, 1995), 집단따돌림 피해 학생과 상대적으로 낮은 자존감을 가진 학생이 일탈 행동과 유의한 관계를 가진다는 연구(Rigby & Cox, 1996)와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친구는 학교에서의 성취를 달성하는데 직접적인 도움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의 기회와 다양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주요 자원인데(Erath, Flanagan, & Bierman, 2008), 피해 학생의 경우 이러한 자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므로 학교 적응 및 학업성취가 어렵게 되고 이는 다시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상황에 따른 적응력이 떨어져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며 대인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행동에 충동적인 면이 있어 또래관계에서 소외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성향을 보인

다(최윤정, 2001).

그리고 대인관계능력이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집단따돌림의 피해자들이 부적절한 대인관계 기술을 지니고 있거나(구본용, 1997),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한 연구(은혁기, 2000), 따돌림 피해학생이 친구들 간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우정을 나누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결과(이춘재, 이시재, 박금주, 1997), 피해집단은 다른 세 집단보다 대인관계에서의 만족도가 낮고,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여 따돌림의 피해를 받고 있다는 연구(이춘재, 박금주, 2000)들을 통합하여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부모지지, 교사지지, 또래지지가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지지와 교사지지, 또래지지를 높임으로써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은 전 생애동안 발달하고 형성되는 것으로 청소년기는 자아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활발해 지므로 그 어떤 시기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김지영, 이형실, 2010). 본 연구에서는 세 변인 중 부모지지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상대적으로 영향력(Total Effects)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또래지지, 교사지지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부모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독립하려고 하여 부모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기에도 여전히 부모와의 관계가 인지, 정서, 사회적 발달의 다양한 영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이승연, 2009).

청소년기는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욕구가 강해지면서 평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또래

집단에 몰입하는 발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청소년기에는 상대적으로 또래관계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사회적 동조 행동이 많이 증가하여 또래로부터 얻는 지원과 이해 및 인정이 매우 중요하다(이은희, 2005). 이렇게 또래 역시 자아존중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데, 양숙경과 문혁준(2012)의 연구에서 또래와의 의사소통이나 신뢰 및 지지가 자아존중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Laible, Carlo & Roesch, 2004)에서 만족스럽고 조화로운 또래 관계를 가졌을 때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갖게 되었다. 또래관계의 질은 자아개념과 대인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발달시키며, 자신을 지지하는 친구와의 잦은 어울림은 높은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Garber & Flynn, 1998).

Garber와 Flynn(1998)은 교사의 지지와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에서 수행결과에 대해 갖는 귀인양식이나 학업능력에 관한 신념은 교사로부터의 직접적 피드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교사의 지지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또한 부모, 또래, 교사의 지지등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 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다는 연구(신미, 전성희, 유미숙, 2012)들과 함께 통합하여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부모지지, 교사지지, 또래지지가 대인관계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지지와 교사지지, 또래지지를 높임으로써 청소년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 세 변인 중 또래지지가 청소년의 대인관계능력에 상대적

으로 영향력(Total Effects)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다음으로 부모지지, 교사지지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자신이 주위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인식하고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교사관계, 친구관계, 학교수업 면에서 더 적응적이었음을 보고한 신현숙(2008)의 연구와 사회적 지지의 지각수준이 높을수록 대인문제 해결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김병석과 정은희(2004)의 연구, 사회적 지지가 높은 청소년은 대인관계기술이 우수하고 문제해결 중심의 효과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한다는 연구(이광희, 2002)들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부모지지, 교사지지, 또래지지는 집단따돌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회적 지지와 집단따돌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을 통한 간접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 예방을 위한 보다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었다는데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 친구, 교사 등 주위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집단따돌림 피해 정도가 낮았다고 보고된 선행연구(장미향, 성한기, 2007)들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는데, 선행연구에서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것이 때문에 사회적 지지와 집단따돌림이 관계가 있다는 정보만을 얻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모델을 설정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지지와 집단따돌림간이 상관이 있지만 사회적 지지가 집단따돌림 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환경 변인인 가족, 또래, 교사로부터 받게 되는 물질적·정서적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이 향상되고, 이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이 다시 집단따돌림 피해에 영향을 미쳐, 최종적으로 집단따돌림 피해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이 또래지지와 가장 큰 부적상관이 있었다고 보고되었는데(장미향, 성한기, 2007), 이는 중학생 피해 집단이 친한 친구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이춘재와 박금주(2000)의 연구, 학교폭력피해가 증가할수록 친구의 지지와 상호우정의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Erath, et al., 2008)와 함께 또래지지가 집단따돌림과 부적상관이 있다는 정보를 제시해 준다. 하지만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두 변인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또래지지는 집단따돌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을 통해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와 연구방법의 차이점 때문이라고 사료되지만 다양한 대안적 모델을 통해 사회적 지지와 집단따돌림의 관계를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집단따돌림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전체효과는 대인관계능력($\beta = -.28, p < .05$), 자아존중감($\beta = -.24, p < .05$), 또래지지($\beta = -.23, p < .05$), 부모지지($\beta = -.18, p < .05$), 교사지지($\beta = -.04, p < .05$)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하여 가

정환경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청소년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 환경을 꼽는다(Wilkinson, 1974). 또한 청소년기의 심리사회적 적응은 가족관계 뿐만 아니라 학교장면에서 이루어지는 또래관계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김은정 등, 2001).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춘재와 곽금주(1999)의 연구에서 집단따돌림 경험이 없는 집단이 가장 많은 사회지지를 받았고, 김혜원과 이해경(2000)의 연구에서도 집단따돌림 경험이 없는 집단이 가족지지를 가장 많이 받으며, 청소년은 가족으로부터 가장 크게 지지를 받는 반면, 교사로부터는 가장 적은 정도의 지지를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에 교사지지가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을 미루어볼 때 실제 학교장면에서 교사들의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큰 이슈화됨에 따라, 올 2월 교육과학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13개 합동부처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는데, 7가지 종합대책 중 6개 대책이 예방에 집중되어 있어 사후 조치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며, 가해·피해 학생에 대한 양방향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집단따돌림 피해가 적게 나타나는 직·간접 효과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는데, 본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두어 집단따돌림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개입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의 집단따

돌림 피해를 효과적으로 중재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피해자 개입 프로그램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학교사회복지사와 상담교사를 통해 학교 내에서 자아존중감이 낮고, 대인관계능력이 미숙한 학생들에 대한 선별이 필요하며, 대상군을 발견한 경우, 개별상담 및 집단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과 집단 대인관계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이들이 집단따돌림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정하은, 정종설, 2012). 한번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급격히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정익중, 2006) 단기프로그램보다는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된다. 또한 사회적 지지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관 및 청소년 수련원, 건강가정지원센터, 학교 등에서 부모교육을 확대하고 부모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시키며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교사교육을 강화하여 교사역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집단따돌림에 대한 적절한 개입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문성을 가진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속적인 시행이 요구된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집단따돌림에 대한 심층적인 인과모형을 검토하기 위해 보다 더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 종단적 연구를 통하여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거나, 성장모형을 통한 상호 교류관계의 연구로 발

달경향을 분석해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대구지역 1개 학교에서 이루어 졌으나,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료수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명옥 (2011).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과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곽금주 (1999). 학교폭력 및 왕따 예방 프로그램(Ⅰ):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2), 105-122.
- 구본용 (1997). 청소년의 집단따돌림의 원인과 지도방안.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 김대벽 (2012. 6. 4). 대구서 고교생 또 투신자 살, 5개월 새 8명. 뉴스1코리아. <http://news1.kr/articles/691093>
- 김동욱 (2011). 집단따돌림 예방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사회기술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병석, 정은희 (2004). 인터넷 채팅중독 청소년의 공격성, 사회적 지지 지각, 인지적 대인문제 해결능력간의 관계. 청소년 상담연구, 12(1), 91-99.
- 김용태, 박한샘 (1997). 청소년 친구 따돌림의 실태조사. 「따돌리는 아이들,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서, 29, 57-84.
- 김윤경 (1997). 인기, 무시, 배척집단의사회기술 및 부모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정, 김인경, 정태연 (2001). 집단괴롭힘을 당하는 집단의 심리적 취약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2), 245-257.
- 김준호 (2002). 학교폭력의 현황 및 실태. 청소년보호위원회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발표문.
- 김지영, 이형실 (2010). 청소년의 가족 및 또래 요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2(1), 21-32.
- 김창대, 김수임 (2001).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와 연구. 학생연구, 35(1), 83-95.
- 김혜원, 이해경 (2000).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45-64.
- 노성호 (2004). 학교폭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15(1), 87-119.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박미선, 김용수 (2003). 청소년을 위한 집단따돌림 예방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 동서정신과학, 6(2), 247-257.
- 박소현 (2008). 초등학생의 부, 모, 또래애착과 집단따돌림 경험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지원 (1985). 사회적지지 척도개발을 위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진영 (2008).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 아동의

- 관련변인 분석: 부모의 양육 행동과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능력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기연 (2011).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 또래지 지 중심 집단따돌림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 미, 전성희, 유미숙 (2012).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분석. 아동학회지, 33(1), 81-92.
- 신현숙 (2008). 도움에 대한 청소년의 정서적 및 친사회적 반응: 도움 제공자의 보답기 대에 따른 차이. 청소년학연구, 15(6), 65-87.
- 양곤성 (2011). 용서교육프로그램이 집단따돌림 피해아동의 용서와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숙경, 문혁준 (2012). 가족기능,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인간 발달연구, 19(2), 115-130.
- 윤혜정 (1993).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 관계망지지 지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은혁기 (2000). 대인 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 조절 집단상담이 청소년의 자기인식, 타인 인식, 대인기술 및 대인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광희 (2002). 가출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와 문제해결능력간의 관계. 단국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기문, 김진희 (1999). 흑시, 우리아이 왕따 아닐까. 서울: 국일미디어.
- 이선희 (2012). 공감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집단따돌림 동조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승연 (2009). 어머니의 또래관계 관리전략이 청소년의 또래관계 질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희 (2005). 청소년의 친구관계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춘재, 박금주 (1999).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 실태, 특성 및 대책. 서울: 집문당.
- 이춘재, 박금주 (2000). 집단따돌림 경험 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사회적지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65-80.
- 이춘재, 이시재, 박금주 (1997).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부천시.
- 장문영 (2008).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집단따돌림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미향, 성한기 (2007).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경험과 사회정체성 및 사회적지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1), 77-87.
- 전민영 (2007). 인식대상에 따른 집단따돌림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자아개념의 비교.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수진 (2011). 집단따돌림 피해행동의 위험요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익중 (2006). 자아존중감과 청소년비행 간의 상호적 영향. *사회복지연구*, 31, 133-159.
- 정하은, 전종설 (2012).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의 위험요인. *청소년복지연구*, 14(1), 195-212.
- 정화니 (2010). 부모의 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 행동과의 관계에서 공감과 자존감의 역할.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학래 (2002). 중학생 집단따돌림의 실태와 대응방안. *연세사회복지연구*, 8, 1-26.
- 진경옥 (2008). 초등학교의 애착안정성 자기지각 및 학급응집력과 집단따돌림과의 관계: 도시와 농촌을 대상으로 비교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보가, 전귀연 (1993). 「자아존중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1). *대한가정학회지*, 31(2), 41-54.
- 최윤정 (2001). 학령기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아동의 인격성향에 관한 연구.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12(1), 94-102.
- 최은숙 (1999).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경향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에 관련된 일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송이 (2007). 집단따돌림 경험유형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기주장 행동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ustin, S., & Joseph. S. (1996). Assessment of bully/ victim problems in 8 to 12 years old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6(4), 447-456.
- Buhrmester, D., Furman, W., Wittenberg, M. T., & Reis, H. T. (1988).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6), 991-1008.
- Demaray, M. K., & Malecki, C. K. (2003). Perceptions of the frequency and importance of social support by students classified as victims, bullies, and bully/victim in an urban middle school. *School Psychology Review*, 32, 471-489.
- Erath, S. A., Flanagan, K. S., & Bierman, K. L. (2008). Early adolescent school adjustment: association with friendship and peer victimization. *Social Development*, 17(4), 853-870.
- Garber, J., & Flynn, C. (1998). Origins of depressive cognitive style. In D. Routh & R. J. DeRubeis(Eds.), *The science of clinical psychology* (pp.53-93).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Jessor. R., & Jessor, S. L. (1997). *Problem behavior and psychosocial development: A longitudinal study of youth*. New York: Academic Press.
- Kandel, D. B. (1978). *Longitudinal research on drug use: empirical findings and methodological issues*. Washington, D. C: Hemisphere-Wiley.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3r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Ladd, G. W., & Burgess, K. B. (2001). Do relation risks and protective factors moderate the linkages between childhood aggression and early psychological and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72, 1579-1601.

- Laible, D. J., Carlo, G., & Roesch, S. C. (2004). Pathways to self-esteem in late adolescence: The role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empathy, and social behaviors. *Journal of Adolescence*, 27(6), 703-716.
 - Olweus, D. (1992). "Victimization by peers: Antecedents and long-term outcomes." In K. H. Rubin & J. B. Asendorpf(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pp.315-341). Hillsdale, NJ: Erlbaum.
 - Olweus, D. (1994). "Annotation: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ble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1117-1190.
 - Perry, D. G., Williard, J. C., & Perry, L. C. (1990). Peer's perception of the consequences that victimized children's provide aggressors. *Child Development*, 61, 1310-1325.
 - Rigby, K. (1999). Effects of peer victimization in school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on adolescent well-being. *Journal of Adolescence*, 23, 57-68.
 - Rigby, K, & Cox, I. (1996). The contribution of bullying at school and low self-esteem to acts of delinquency among Australian teenage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1(4), 609-612.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lee, P. T. (1995). Peer victimization and its relationship to depression among Australian primary school stud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1), 57-62.
 - Suderman, M, Jaffe, P. G., & Schiek, J.(1996). *Bullying: Information for parents and teachers*. London Family Court Clinic.
 - Suzanne, G., Wendy, M. C., Debra, P., & Jennifer, C. (2003).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victimization: Identifying risk and projective factors. *Journal of Applied School Psychology*, 19(2), 139-156.
 - Tucker, L. R., & Lewis, C. (1973).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 1-10.
 - Wilkinson, K., (1974). The broken family and juvenile delinquency: Scientific explanation or ideology. *Social Problems*, 21, 726-773.
- 1 차원고접수 : 2012. 7. 10.
수정원고접수 : 2012. 8. 17.
최종게재결정 : 2012. 8. 31.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Related Variables of Adolescent's Bullying

Lee, Jin Ju Kim, Jung Min Moon, Dae Geun Lee, Jong Kak Moon, Soo Back

Dept. of Child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related variables of adolescent's bullying. A total of 790 middle school students residing in Daegu City completed questionnaires which assessed social support,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and bullying. The sample variance-covariance matrix was analyzed using AMOS 19.0, and a maximum likelihood minimization function. Goodness of fit was evaluated using the SRMS, RMSEA, and its 90% confidence interval, CFI, and TLI.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had a significant and direct effect on the bullying. Second, parental support, teacher's support, and friend's support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both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Third, parental support, teacher's support, friend's support did not appear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or direct effect on bullying, although it may well have an indirect effect on bullying through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Key words : social support,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bullying, adolescent